

Family • Faith • Holy Spirit • Mission

2025. 11.

독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 순모임 프리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 감사의 계절, 열매의 계절

시애틀에도 감사의 계절, 아름다운 11월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푸르렀던 나무들이 노랑과 붉은빛으로 고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 계절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향해 나아가는 이 달,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는 작은 감사의 이유들을 차곡차곡 모으며 가정과 순모임에 기쁨의 추억이 더 많이 쌓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선하게 인도해주셨지만 이보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순원들을 품어주시고, 기쁜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늘 곁에서 함께해 주신 순장님, 교구장님들의 따뜻한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에도 분명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안아주신 순장님들로 인해, 우리 공동체는 더욱 사랑이 깊어지고 신앙의 뿌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시 50:23)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삶 곳곳에 숨겨진 은혜들을 다시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부드럽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장님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순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가득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축복을 담아, 권준 드림

01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순모임**  
**프리뷰**

순모임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1, 11월 4일 본문, P178 |

**핵심 주제** Focus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께 인정받습니다.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디모데후서 2:14-26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사도 바울은 AD 66-67년 경에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수감된 상태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화재가 있었으며,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학살방으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시 풀려나지 못할 것을 직감했고, 순교를 준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리더십과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에서는 거짓 진리를 주장하는 교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면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관찰과 묵상>**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하라고 권면했나요?(15절)

**1-2 <적용과 나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삶의 차이는 무엇인지, 나는 누구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나누어 보세요.

**2-1 관찰과 묵상** 비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버리라고 했나요? 또한 어떤 것들을 따르라고 제안했나요? (22-23절)

**2-2 적용과 나눔** 최근 하나님이 내게 피하거나 버리라고 하시는 것, 또는 특별히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보세요.

###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사도 비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을 권면하고, 의미 없는 말다툼을 그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시대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비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 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화평의 길로 걸어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교리를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 ②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온유함으로 권면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핵심 주제**

Focus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진리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께 인정받습니다.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디모데후서 2:14-26절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14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4 그대는 그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여라. 그 것은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해칠 뿐이다.	14 Remind them of these things, and charge them before God not to quarrel about words, which does no good, but only ruins the hearers.
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5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15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to God as one approved, a worker who has no need to be ashamed, rightly handling the word of truth.
16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16 속된 집담을 피하여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건함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16 But avoid irreverent babble, for it will lead people into more and more ungodliness,
17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7 그들의 가르침은 임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그 중에는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다.	17 and their talk will spread like gangrene. Among them are Hymenaeus and Philetus,
18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으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18 그들은 진리에서 멀리 떠나 버렸고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다.	18 who have swerved from the truth, saying that the resurrection has already happened. They are upsetting the faith of some.
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섯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굳건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악에서 떠나라”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19 But God's firm foundation stands, bearing this seal: "The Lord knows those who are his," and, "Let everyone who names the name of the Lord depart from iniquity."
20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구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느니	20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구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20 Now in a great house there are not only vessels of gold and silver but also of wood and clay, some for honorable use, some for dishonorable.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2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3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앓아라

24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하며

26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함이라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22 또한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구하여라.

23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그대도 일다사피 그것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24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침울성이 있어야 하며

25 반대하는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고

26 마귀에게 불잡혀 마귀의 뜻을 따르던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다.

21Therefore, if anyone cleanses himself from what is dishonorable, he will be a vessel for honorable use, set apart as holy, useful to the master of the house, ready for every good work.

22 So flee youthful passions and pursue righteousness, faith, love, and peace, along with those who call on the Lord from a pure heart.

23 Have nothing to do with foolish, ignorant controversies; you know that they breed quarrels.

24 And the Lord's servant must not be quarrelsome but kind to everyone, able to teach, patiently enduring evil,

25 correcting his opponents with gentleness. God may perhaps grant them repentance leading to a knowledge of the truth,

26 and they may escape from the snare of the devil, after being captured by him to do his will.

##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사도 바울은 AD 66–67년 경에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수감된 상태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대화재가 있었으며,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학생양으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시 풀려나지 못할 것을 직감했고, 순교를 준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리더십과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에서는 거짓 진리를 주장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권면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관찰과 묵상**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하고 권면했나요? (1절)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해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옳게 분별하다”라는 표현은 ‘바르게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전달하라는 책임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1세기 당시 기독교 교리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 안에 성경과는 다른 진리를 주장하는 거짓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리하여 성도들에게 온유함으로 가르칠 것을 권면했습니다.

**1-2 < 적용과 나눔 >**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삶의 차이는 무엇인지, 나는 누구에게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지 나누어 보세요.

**해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했습니다. 즉,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아도 사람에게 받는 인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무한하신이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인정을 주실 때, 사람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2-1 < 관찰과 묵상 >**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버리라고 했나요? 또한 어떤 것들을 따르라고 제안했나요? (22-23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다툼이 일어나기에 무식한 변론을 버리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설** 사도 바울은 “청년의 정욕(the evil desires of youth)”을 피하라고 명령법을 사용하여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는 육체적 유혹(sensual allurements)을 가리키기보다, 젊은 시절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태도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성급한 반응, 사소한 문제에 대한 긴 논쟁, 분노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덕목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들입니다. 바울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2-2 < 적용과 나눔 >** 최근 하나님이 내게 피하거나 버리라고 하시는 것, 또는 특별히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보세요.

**해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유혹과 욕망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을 권면하고, 의미 없는 말다툼을 그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던 시대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비성경적이거나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의 일꾼 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화평의 길로 걸어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교리를 굳게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 ②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온유함으로 권면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 순장님을 위한 말씀 구절 연구 Word Studies

**14절**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반복적인 언급과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즉, 반복적으로 말다툼을 멈출 것을 가르치라는 의미입니다. 말다툼을 멈추어야 할 두 가지 이유는 첫째, 유익이 없고, 둘째,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Paul outlined two results of such verbal quibbles. First, it accomplishes no good purpose ("is useless," NASB; "is of no value," NIV). Second, it works to the ruin of those who participate in it ("brings destruction on those who hear it," Williams). The word for "ruins" (*katastrophē*) describes the tearing down of believers." \_Thomas Lea, 1,2 Timothy in NAC, 166.

**15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농사일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겸손하고, 사소한 일들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The term "workman" is frequently used in reference to an agricultural laborer (e.g., Jas 5:4), but here Paul used the term to describe a laborer for God. Paul was urging his Christian friend to work with such diligence that he would have no fear of shame for poor quality work." \_Lea, 1,2 Timothy in NAC, 166.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 헛된 말은 진리와 관련이 없으며, 목적없이 공허한 논쟁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헛된 말을 피할 것을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하여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항상 깨어서 이단의 위협을 경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The use of the present imperative for "avoid" suggests that Timothy had to remain continually alert to the threat of heresy." \_Lea, 1,2 Timothy in NAC, 167.

**17절** 악성 종양 사도 바울은 그릇된 진리를 전하는 이단을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가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악성 종양이라는 단어는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조직이 점점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패한 이단적인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몸인 에베소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Paul compared the spread of the heresy to the spread of gangrene through the body. The term for gangrene, used only here in the New Testament, describes the death of bodily tissues due to the loss of blood supply." \_Lea, 1,2 Timothy in NAC, 167.

**19절a** 하나님의 견고한 터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견고한 터라는 표현은 에베소 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2차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19절b** 인 침이 있어 일렸으되 성경 안에서 '인(seal)'은 확실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표시 또는 도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실히 아시고 돌보심을 의미합니다.

"A seal is a sign or a stamp of approval that shows genuineness or attests ownership. Paul pictured God's people as stamped with two seals." \_ Lea, 1, 2 Timothy in NAC, 167.

**20절** 큰 집에는 바울은 큰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교회를 표현하였습니다. 그 집에는 여러 종류들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집 안에는 금 그릇, 은그릇, 값싼 나무나 질그릇 등이 있습니다.

금과 은의 그릇들은 존귀한 목적(noble use)에 사용되며, 나무나 질그릇은 평범하거나 천한 목적(ignoble use)에 사용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금과 은의 그릇들(articles of gold and silver)"은 가치 있고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나무와 질그릇의 그릇들(articles of wood and clay)"은 부끄럽고 신앙적으로 불성실한 자들, 즉 피해야 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In using the expression "articles ... of wood and clay," he spoke of unworthy Christians, who were to be avoided. Paul was suggesting that the church contained both faithful and unfaithful believers." \_ Lea, 1, 2 Timothy in NAC, 169.

**21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 성도님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구분하고, 그 것으로부터 분리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잘못된 진리를 구별해야 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His emphasis on what Timothy should avoid in 2:14, 16 related more to the content of the false teaching than to the person of the false teacher. Later in this chapter Paul would appeal for Timothy to instruct false teachers so that they could repent of heretical views (2:24-26)." \_ Lea, 1, 2 Timothy in NAC, 169.

**22절**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사도 바울은 "청년의 정욕들(the evil desires of youth)"을 피하라고 명령법을 사용하여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는 육체적 유혹(sensual allurements)을 가리키기보다, 젊은 시절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태도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성급한 반응, 사소한 문제에 대한 긴 논쟁, 분노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Young men can be characterized by partiality, intolerance, half heartedness, and unwarranted self-assertion. These were the qualities Timothy was to avoid." \_ Lea, 1, 2 Timothy in NAC, 169.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바울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한 건전한 대화와 토론을 금지한 것 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익이 없이며, 질문 자체만 가지고 분열시키는 혼란을 만드는 의미없는 논쟁을 버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Paul was not prohibiting intelligent, probing theological discussion but useless wrangling over recondite questions that divide and confuse. We must cultivate a judgment that can distinguish between these options." \_ Lea, 1, 2 Timothy in NAC, 170.

**24절** 온유하며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온유함으로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gentleness)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지키면서도, 관용적인 대화를 통해서 따뜻하게 권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call for gentleness demands a tolerance in spirit without a weakening of evangelical orthodoxy." \_ Lea, 1, 2 Timothy in NAC, 171.

**25절** 혹 하나님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온유한 훈계의 목표는 믿지 않는 자들, 잘못된 교리를 믿는 자들이 자신의 잘못됨을 확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새롭게 한신하는 것입니다.

"Paul wanted the false teachers to experience repentance so that they would acknowledge the truth. To acknowledge the truth involved understanding the gospel so that they might experience a genuine commitment to Christ." \_ Lea, 1, 2 Timothy in NAC, 171.

## • 11월 주요 사역일정과 기도제목 •

### 주요 사역 일정

- KIMNET 컨퍼런스(11/10~12)에 참석하시는 모든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 영육 간에 강간함을 주시고, 세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 일대일 아웃리치(11/6~9)를 통해서 중부워싱턴인장로교회에 건강한 일대일 제자양육팀이 세워지게 하소서.
- 50기 시애틀 아버지 학교(11/14, 15, 21, 22) 사역을 통해서 영어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영적 리더로 세워지게 하소서.
- 선교 뱅.swt '하나님의 이야기'(1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행하신 위대한 선교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 전도폭발 아웃리치(12/3~15)을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에 훈련된 일꾼으로 서게 하소서.
- 순장교구장 리트릿(12/6)을 통해서 소그룹 리더로서 필요한 '소통의 지혜'와 '장애물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 새가족만찬(12/7)을 통해서 최근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이 영적인 가족을 만나고 건강하게 정착하게 하소서.
- 특별새벽기도(12/8~13)를 통해서 온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소서.
- 영어 예배 가운데 특별한 기름 부으심으로 영어권 성도들과 공동체가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 다음 세대 기도제목

- Sonlight에서 11월에 진행하는 BTW(BIBLE TOGETHER WEDNESDAYS)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리더로 성장하게 하시며, 성탄절 뮤지컬(12/24)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 Coram Deo 학생들이 준비하는 뱅쿠를 통해서, 서로 하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NEXT PTA에 세워진 리더십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뱅쿠(11/13)준비를 통해서 각 학년들이 하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소서.
- EW College 학생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시험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이기게 하소서.
- NeWave에서 시작되는 느헤미야 시리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며, Thanksgiving Feast(11/23)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Family • Faith • Holy Spirit • Mission

# 순장교구장 리트릿



일시 2025. 12. 6. 오전 9시30분 – 오후 4시

장소 바셀 캠퍼스 빌딩 1 본당

대상 모든 순장, 순모, 교구장, 교구모님께서는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